

30~47 개월 일반아동의 의문사 질문 이해 발달: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무엇이, 무엇을

The Comprehension of “who” and “what” Questions
in Normally Developing Korean Children

정미란* · 황민아**
Mi Ran Jung · Mina Hwang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omprehension of “who” and “what” questions in 2- to 3-year-old normal children. Sixty children were divided into 3 groups depending on their ages, i.e., age groups 2;6-2;11, 3;0-3;5, and 3;6-3;11. Three types of “who” questions and 2 types of “what” questions were generated depending on the attached case markers, i.e., who-nominative, who-accusative, who-dative, what-nominative, and what-accusative. The children watched 36 cuts of short video recordings. After watching each cut, they were asked to answer one of the 5 types of wh-questions.

For the “who-nominative” and “what-accusative” questions, even the late 2-year-old children performed with over 70% of accuracy, and the late 3-year-old children performed with over 95% of accuracy. For the “who-accusative” and “who-dative” questions, the late 2-year olds exhibited difficulty in comprehension with performance accuracy of 41% and 33%, respectively. However, the late 3-year olds could comprehend those questions correctly with over 90% of accuracy. On the other hand, in answering “what-nominative” questions, the children did not show rapid development across the age groups, as the mean performance accuracies of the 3 groups were 39%, 49%, and 59%, respective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children’s understanding of a wh- question is largely affected by the case of the interrogative.

Keywords: comprehension of who- or what-questions, case markers,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1. 서 론

의문사의 발달에 관한 연구는 언어발달의 여러 측면과 연관되어 실용적 가치가 높다. 의문사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과 인지발달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에(Owens, 2001; Camarata, 1998; Flavell, 1986; Rieke & Lewis, 1984; Atkinson, 1982)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의 의문사 발달 연구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영어권에서 의문사의 산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Savic, 1975; Tyack & Ingram, 1977; Bloom, Merkin, & Wootten, 1982)은 주로 3 세 이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문사의 출현 순서를 찾아냈다. 이들의 연구는 아동이 3 세경이 되면 '무엇', '어디', '누구', '왜', '언제' 등의 의문사를 산출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Savic(1975)은 성인과 쌍둥이 한 쌍 사이의 대화를 통해 아동이 사용하는 의문사의 출현을 연구하였다. 아동은 '무엇', '어디', '누구', '어떻게', '왜', '언제'의 순으로 의문사를 사용하였으며, '무엇'이 산출된 연령은 두 아동 모두 14 개월 때였고, '언제'가 산출된 연령은 각각 36 개월과 29 개월이었다. Bloom et al(1982)은 2 세부터 3 세까지 아동들을 관찰하여 전기의 의문사를 '무엇', '어디', '누구'로, 후기의 의문사를 '어떻게', '왜', '언제'로 구분하였다. 관찰 대상인 7 명의 아동 중 5 명 이상이 산출한 때를 근거로 발달순서를 정하였는데, 26 개월에 '어디'와 '무엇', 28 개월에는 '누구', 33 개월에는 '어떻게', 35 개월에는 '왜'가 나타났다.

의문사의 이해발달에 관한 연구들(Ervin-Tripp, 1970; Tyack & Ingram, 1977; Parnell, Patterson, & Harding, 1984; Parnell, Amerman, & Harting, 1986)에서는 의문사에 대한 이해발달의 순서가 의문사 자체만이 아니라 질문되는 문장 내의 동사의 종류, 동사의 의미 특성, 해당 의문사에 사용되는 격의 종류, 그리고 질문 내용에 대한 참조물의 시각적 이용 가능성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Ervin-Tripp(1970)은 영어를 사용하는 2 세 6 개월부터 3 세 1 개월까지의 아동 24 명을 매달 관찰하여 의문사 이해의 발달순서를 정하였다. '예/아니오', '무엇', '어디'가 가장 먼저 이해되고, 그 후에 '왜', '누구-주격', '어떻게' 및 '어디(where from)', '언제' 및 '누구-목적격'의 순서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Tyack & Ingram(1977)은 3 세에서 5 세 5 개월에 이르는 정상아동 100 명을 6 개월 단위로 5 집단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누구-주격'이 '누구-목적격'보다 먼저 이해되며, '무엇-목적격'이 '무엇-주격'보다 먼저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는 생체성(animacy feature)을 지닌 '누구'는 주어와 쉽게 연결되고 반면에 비생체성(inanimate)을 지닌 '무엇'은 목적어와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격의 종류 뿐 아니라 동사의 특성 면에서 볼 때 타동사가 포함된 질문에 대해서는 연령증가에 따라 점진적인 정답률의 증가를 보였으나 자동사는 다섯 집단의 아동들의 점진적인 발달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동사가 갖는 의미적 특성도 의문사 질문의 이해에 영향을 미쳤는데 'touch'는 질문한 의문사가 무엇이든 'where'로 반응하는 비율이 높게 만들었으며 'help'는 'why' 반응을, 'ride'는 'where' 반응을 주로 이끌었다고 하였다. Parnell et al(1984)은 3~6 세 정상아동에 대한 의문사 질문 이해과제에서 참조 조건에 따라 정반응률의 차이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즉, 질문 내용의 참조물이 직접적 행동인가 그림인가 아니면 언어인가에 따라 정반응률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에 대한 의문사 산출에 관한 연구는 김성찬(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2 세부터 8 세에 이르는 아동 69 명을 대상으로 '누가'(누가 소를 미니?)와 '누구를'(소가 누구를 미니?) 의문문 산출을 유도한 결과 '누구/주격(누가)'이 '누구/목적격(누구를)'보다 훨씬 쉽다고 하였다.

의문사 이해 연구로는 손병환(1985)과 배소영(1987), 김성찬(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손병환(1985)은 4, 5, 6 세 아동 120 명씩 총 360 명을 대상으로 의문사 질문에 대한 이해를 연구한 결과, 각 의문사의 이해수준은 '누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어디',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배소영(1987)은 3, 4, 5 세 정상아동의 의문사 질문에 대한 응답능력이 연령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의문사 이해발달 순서는 ‘무엇(목적격 위치)’, ‘누구(목적격 위치)’, ‘어디서’, ‘왜’, ‘언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75%의 정반응률을 획득기준으로 했을 때 4 세에 ‘무엇’-목적격, ‘누구’-목적격, ‘어디서’, ‘왜’가 획득되었고 5 세에 ‘언제’가 획득된다고 하였다. 김성찬(1997)은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가 ‘누구를’ 질문보다 약간 더 쉬웠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사 중에서 초기에 습득되는 것으로 보고된 ‘누구’와 ‘무엇’이 포함된 의문문에 대한 이해 발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생체성인 ‘누구’와 , 비생체성인 ‘무엇’은, Tyack & Ingram(1977)의 연구에서 의문사의 격과 결합하여 의문사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한국 아동들의 의문사 이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이 두 의문사에 대한 이해가 격에 따라 변화하는지가 체계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누구/주격(누가)’과 ‘무엇/목적격(무엇을)’만을 비교하거나(손병환, 1985), ‘누구’와, ‘무엇’의 이해를 같은 목적격에서만 비교하거나(배소영, 1987), 의문사 ‘누구’만을 주격과 목적격에서 비교(김성찬, 1997)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사 ‘누구’, ‘무엇’이 다양한 격에서 사용되었을 때 아동의 이해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조사를 통해 격이 실현되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의문사 질문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문사가 어떤 조사와 결합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어에 있어서 격조사에 대한 연구(조명환, 1982; 배소영 · 이승환, 1996; 김수영, 1997; 이은경, 1999; 배소영, 1997; 이남순, 1998; 이순형, 1983; 이순형, 2000; 조명환, 1982; 최용주, 2003)는 산출이나 이해순서에 대한 이견이 많다. 이러한 차이는 연구방법과 대상 아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주격(가, 이), 목적격(를), 여격(한테), 장소격(에) 조사들이 다른 조사들에 비하여 먼저 발달한다는 것에는 공통적으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구’와 ‘무엇’ 의문사에 결합될 수 있는 조사들 중에서 선행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초기에 발달한다고 보고한 주격(가, 이), 목적격(를), 여격조사(한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누구’에 대해서는 주격(누가), 목적격(누구를), 여격 조사(누구한테)를 결합하였으며, ‘무엇’에 대해서는 주격(무엇이)과 목적격 조사(무엇을)를 결합하여 이해 발달을 살펴보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찍 습득되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누가’와 ‘무엇을’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의 참조 문맥이 다른 경우에 이해 반응의 양상 차이가 있는지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누가’ 질문에 대해서도,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 혹은 타동사인 경우에 이해 정확도가 다를 수 있고, 같은 타동사인 경우라도 행위의 대상이 사물인가 사람인가에 따라 이해 반응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누구’와 ‘무엇’ 의문사가 일찍 습득되는 의문사임을 고려하여 연령이 2 세 6 개월부터 3 세 11 개월 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동들의 연령을 1 년 단위로 분류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6 개월 단위로 분류하여 발달적 변화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질문의 참조물을 그림으로 제시한데 반하여, 어린 아동들이 실생활에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질문의 참조 상황을 video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 세 6 개월부터 3 세 11 개월까지의 아동 60 명이었다. 연구대상은 인천의 어린이집과 놀이방 7 곳에서 표집하였고 대상아동은 교사와 부모의 보고에 근거할 때 인지, 언어, 운동, 사회성 면에서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아동들이었다. 아동의 연령을 6 개월 단위로 나누어 각 연령 그룹마다 20 명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아동의 분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아동의 분류

집단	연령 범위(세;개월)	사례 수		평균 연령
		남	여	
2 세 후반	2; 6 ~ 2; 11	10	10	2 세 10 개월
3 세 전반	3; 0 ~ 3; 5	10	10	3 세 3 개월
3 세 후반	3; 6 ~ 3; 11	10	10	3 세 9 개월

2.2 도구

질문 내용에 대한 참조 장면은 video camera(Sony CCD-TRV46)로 촬영하여 VTR tape을 제작하였다. 참조 장면은 연습용 2 장면과 본 검사 36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 36 장면의 총 길이는 4 분 47 초이고 한 장면 당 평균 7.6 초였다. 36 개의 참조 장면은 동사(행위)의 특성에 의한 등장인물들과 사물의 관계에 따라 4 가지 문맥으로 분류되었다. 문맥 1은(자동사 조건) 자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로, 사람 한 명과 사물 하나가 등장하여 동일한 행위를 독립적으로 하는 장면이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와 자동차가 동시에 떨어지는 장면으로 '언니가 떨어졌다.'와 '공이 떨어졌다'라는 문장이 모두 성립된다. 이 참조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누구/주격)'와 '무엇이(무엇/주격)' 질문이 가능하다. 나머지 3 개의 문맥에서는 타동사가 사용되었다. 문맥 2는(사물 목적격 조건), 사람 한 명과 사물이 등장하여, 사람은 해당 타동사의 행위자가 되고, 사물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장면이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가 밥을 먹는 장면으로 '친구가 밥을 먹었어요.'라는 문장이 성립된다. 이 참조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누구/주격)'와 '무엇을(무엇/목적격)' 질문이 가능하다. 문맥 3은(사람 목적격 조건), 두 사람이 등장하여 한 사람은 해당 타동사의 행위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장면이다. 예를 들면, 누나가 어린 동생을 업어주는 장면으로 '누나가 동생을 업었어요.'라는 문장이 성립된다. 이 참조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누구/주격)'와 '누구를(누구/목적격)' 질문이 가능하다. 문맥 4는 (사람 여격 조건), 두 사람이 등장하여 한 사물에 대한 행위에 대해 각각 주격, 여격의 역할을 하는 장면이다. 예를 들면, 성인 여자가 아동에게 공을 주는 장면으로 '선생님이 아이한테 공을 주었어요.'라는 문장이 성립된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누가(누구/주격)', '누구한테(누구/여격)', '무엇을(무엇/목적격)' 질문이 가능하다.

한 참조 장면에 대해서 하나의 질문만이 제시되었다. 문맥 1(자동사 조건)은 '누가'와 '무엇이' 질문이 가능한 장면이므로 각 질문 유형 당 4 장면 씩 모두 8 장면을 제작하였다. 문맥 2(사물 목적격)는 '누가'와 '무엇을' 질문이 가능하므로 각 질문 당 4 장면 씩 8 장면, 문맥 3(사람 목적격)은 '누가'와 '누구를' 질문이 가능하므로 각 질문 당 4장면 씩 8 장면, 문맥 4(사람 여격)는 '누가', '누구한

테, ‘무엇을’ 질문이 가능하므로 각 질문 당 4 장면 씩 12 장면을 제작하여 전체 36 장면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누가’ 질문은 네 문맥 모두에서 검사되어 총 16 문항, ‘무엇을’ 질문은 두 문맥에서 검사되어 8 문항, ‘누구를’, ‘누구한테’, ‘무엇이’ 질문은 각각 한 문맥에서 검사되어 4 문항 씩 구성되었다. 검사를 위한 36 개의 장면은 무작위로 배열하였다. 검사 질문에 포함되는 어휘는 어휘에 관한 연구들(권경안 외, 1980; 천기석, 1984; 임지룡, 1991; 김광해, 1993; 이수향, 1998; 최은희, 2000)을 참고로 2 세 아동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어휘로 구성하였다. 검사를 위한 질문은 ‘의문사/조사 + 동사?’의 2 어문 형식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어 + 목적어 + 동사’의 형식으로 의문사를 해당위치에 넣어서 질문을 구성하였으나, 그 경우 질문 문장의 구조가 단서가 되어 의문사 부분을 추측하여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누나가 동생을 업는 장면을 주고 ‘누나가 누구를 업어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 아동은 의문사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2 명의 등장인물 중 질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을 답으로 선택하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맥 1~4에 따른 질문은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 문맥에 따른 질문의 예

문맥	의문사/조사	장면의 예	검사질문 예
1 (자동차)	누구 / 주격 (누가) 무엇 / 주격 (무엇이)	여자아이와 공이 내려온다.	누가 내려와요?
		남자아이와 공이 떨어진다.	무엇이 떨어졌어요?
2 (사물-목적격)	누구 / 주격 (누가) 무엇/ 목적격 (무엇을)	남자아이가 신발을 신는다.	누가 신어요?
		여자아이가 우유를 먹는다.	무엇을 먹어요?
3 (사람-목적격)	누구 / 주격 (누가) 누구 / 목적격 (누구를)	형이 동생을 때린다.	누가 때려요?
		선생님이 남자아이를 안아준다.	누구를 안아요?
4 (사람-여격)	누구 / 주격 (누가) 누구 / 여격 (누구한테) 무엇 /목적격 (무엇을)	여자아이가 남자아이한테 공을 찬다	누가 차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공을 준다	누구한테 줘요?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자동차를 준다	무엇을 줘요?

2.3 실험 절차

검사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아동이 TV를 통해 VTR tape의 참조 장면을 시청하는데, 한 장면을 본 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이 보이는 상태로 정지시킨 후 검사자가 질문을 하고 아동이 대답하면 곧바로 기록하였다. 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등장인물에 대해 ‘선생님, 형(오빠), 누나(언니), 동생, 친구’ 등의 호칭을 정하였다. 2 개의 연습문항을 실시하여 검사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검사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 번 더 연습하였다. 연습 문항을 통해 검사 방법을 익힌 후 같은 방법으로 36 개의 문항을 검사하였다. 질문은 자연스러운 속도로 검사자가 직접 들려주었고, 아동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번 더 반복해주었다. 반응은 말로 답하거나 손으로 화면을 짚는 것을 허용하였다. 아동 당 검사 소요 시간은 평균 8 분(6 분~11 분)이었다.

2.4 자료 수집

검사자는 검사 중에 반응을 바로 기록하고, 이후의 확인을 위해 검사과정을 녹음하였으며,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1 일 이내에 다시 검토하였다. 아동이 검사자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면 1 점

을 주었다. 직접 말로 반응할 때 대답을 한 후에 고쳐서 말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반응을 인정하였다. 말로 반응하지 않고 화면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적절하면 정답으로 처리하였다. 화면을 지적한 후에 스스로 “아니, 이거” 등으로 말한 후에 수정해서 지적하면 두 번째 반응을 인정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답을 말하거나 화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경우, 정답과 오답을 모두 지적하는 경우, 무반응인 경우에는 0 점으로 하였다.

2.5 신뢰도 검증

대상 아동 60 명 중 20%에 해당하는 12 명(각 연령 당 4 명)에게 검사를 실시할 때, 언어치료를 전공하고 2 년의 경력을 지닌 언어치료사가 제2 검사자로 참여하였다. 제 1 검사자와 제 2 검사자가 각각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였다. 검사자 간 일치도는 98%였다.

2.6 자료 분석

여러 문맥에서 검사된 ‘누가’와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은 연령에 따른 차이 뿐 아니라 문맥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누가’ 질문은 4 개의 문맥에서 검사되었으므로 연령(3)×문맥(4)의 이원분산분석(문맥은 반복측정됨)을 실시하였고, ‘무엇을’ 질문은 2 개의 문맥에서 검사되었으므로 연령(3)×문맥(2)의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누구한테’, ‘무엇이’, ‘무엇을’ 질문은 모두 한 문맥에서만 검사되었으므로 연령의 주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질문 유형에 대하여 주효과가 유의미한 경우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3. 결 과

3.1 다섯 가지 의문사/조사 질문에 대한 연령별 이해 반응 양상

각 ‘의문사/조사’에 대한 이해의 연령별 평균점수와 정반응률을 <표 3>과 <그림 1>,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의문사/조사 이해의 평균점수(표준편차)와 정반응률

연령	누가 (총점:16)		누구를 (총점:4)		누구한테 (총점:4)		무엇이 (총점:4)		무엇을 (총점:8)	
	평균 (SD)	정반응 률(%)	평균 (SD)	정반응 률(%)	평균 (SD)	정반응 률(%)	평균 (SD)	정반응 률(%)	평균 (SD)	정반응 률(%)
2 세 후반	12.2 (4.24)	76.26	1.65 (1.14)	41.25	1.30 (1.34)	32.5	1.55 (0.94)	38.75	5.86 (2.5)	73.25
3 세 전반	14.04 (2.96)	87.75	2.45 (1.49)	61.25	2.45 (1.73)	61.25	1.95 (1.28)	48.75	6.7 (2.24)	83.75
3 세 후반	15.2 (1.64)	95	3.65 (0.99)	91.25	3.70 (1.67)	92.5	2.35 (1.27)	58.75	7.76 (0.8)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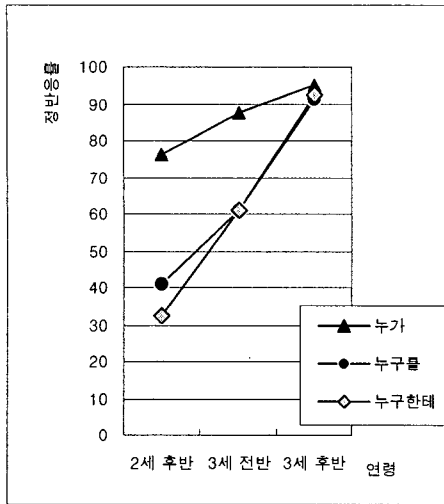


그림 1. '누구/조사'의 정반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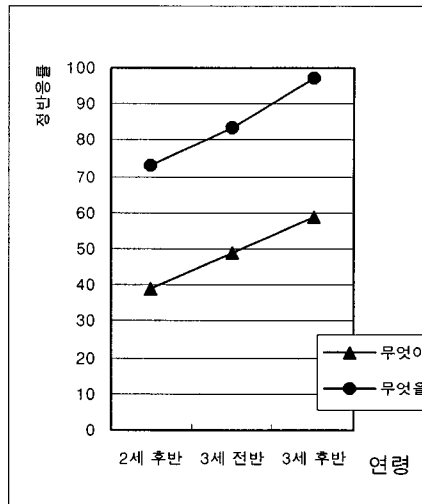


그림 2. '무엇/조사'의 정반응률

<표 3>과 <그림 1>, <그림 2>를 통해 다섯 가지 의문사 각각이 포함된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확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함을 알 수 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같은 의문사가 사용된 질문이라도, 의문사가 나타내는 격에 따라 아동의 연령별 정반응률의 양상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림 1>은 세 종류의 '누구' 질문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보여준다. '누가' 질문에 대해서는 2세 전반 아동들도 76%의 정반응을 했으며 3세 후반 아동들의 정반응율률은 95%에 이르렀다. '누구를'과 '누구한테' 질문에 대해서는 2세 전반 아동들의 정반응율이 각각 41%, 33%로 낮았지만, 3세 후반 아동들은 두 질문 유형에 대해 모두 90% 이상의 높은 정반응률을 보여 이 시기 아동들의 이해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두 종류의 '무엇' 질문에 대한 연령별 반응을 보여준다. '무엇을' 질문에 대해서는 2세 후반 아동들이 73%의 정반응률을 보였으며 3세 후반 아동들의 정반응률은 93%에 이르러,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과 비슷한 발달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세 후반에 39%였던 '무엇이' 질문에 대한 이해 정확도는 3세 후반에도 59%에 그쳤다. 이는 2세 후반에 비슷한 이해 정확도를 보였던 '누구를,' '누구한테' 질문과 비교할 때, '무엇이' 질문에 대한 이해 발달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을 보여준다.

3.2 각 '의문사/조사'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통계 검증 결과

'누가'와 '무엇을' 질문은 2개 이상의 문맥에서 제시되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반응의 차이 뿐 아니라 문맥에 따른 차이를 이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누가' 질문은 4개의 문맥에서 제시되었고, '무엇을' 질문은 2개의 문맥에서 제시되었다. 연령과 문맥에 따른 '누가' 질문에 대한 반응 양상을 <표 4>에 '무엇을' 질문에 대한 반응 양상을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4. 연령과 문맥에 따른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

연령	문맥 1 자동차	문맥 2 사물 -목적격	문맥 3 사람 -목적격	문맥 4 사람 -여격
2세 후반	3.25 (81.25)	2.95 (73.75)	3.05 (76.25)	2.95 (73.75)
3세 전반	3.7 (92.5)	3.7 (92.5)	3.2 (80)	3.45 (86.25)
3세 후반	3.75 (93.75)	3.95 (98.75)	3.7 (92.5)	3.8 (95)

반응 평균 점수(정반응률:%)

표 5. 연령과 문맥에 따른 '무엇' 질문에 대한 이해

연령	문맥 2 사물 -목적격	문맥 4 사람 -여격
2세 후반	3.7 (92.5)	2.15 (53.75)
3세 전반	3.85 (96.25)	2.85 (71.25)
3세 후반	4.0 (100)	3.75 (93.75)

반응 평균 점수(정반응률:%)

연령(3)×문맥(4)의 분산분석 결과,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F_{(2, 57)}=9.026, p<.001$), 문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F_{(3, 171)}=1.966, p>.05$), 연령과 문맥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F_{(6, 171)}=1.162, p>.05$)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연령	22.908	2	11.454	9.026	.000
문맥	2.446	3	.815	1.966	.121
연령*문맥	2.892	6	.482	1.162	.329
오차(연령)	72.338	57	1.269		
오차(문맥)	70.913	171	.415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에서는, 연령(3)×문맥(2)의 분산분석결과 연령의 주효과($F_{(2, 57)}=12.655, p<.001$), 문맥의 주효과($F_{(1, 57)}=36.510, p<.001$), 연령과 문맥 간의 상호작용 효과($F_{(2, 57)}=5.949, p=.003$)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연령	18.117	2	9.058	12.655	.000
문맥	26.133	1	26.133	36.510	.000
연령*문맥	8.517	2	4.258	5.949	.003
오차(연령)	44.250	57	.766		
오차(문맥)	37.350	57	.655		

'누구를', '누구한테', '무엇이' 질문은 모두 한 문맥에서만 검사되었으므로 연령에 따른 이해 반응의 변화를 각각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누구를' 질문에 대한 반응 정확도는 <표 3>에 제시된 대로, 2세 후반에 41.25%에서, 3세 전반에 61.25%, 3세 후반에는 91.2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령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7)}=13.744, p<.001$). ‘누구한테’ 질문에 대한 반응 정확도는 2 세 후반에 32.5%에서, 3 세 전반에 61.25%, 3 세 후반에는 92.5%로 증가하였고, 연령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2, 57)}=15.301, p<.001$). 그러나 ‘무엇이’ 질문에 대한 이해 정확도는 2 세 후반에 38.75%, 3 세 전반에 48.75%였고, 3 세 후반에도 58.75%에 머물러 연령 증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_{(2, 57)}=2.325, p>.05$). 세 유형의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분산분석 결과는 <표 8>, <표 9>, <표 10>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8. ‘누구를’ 질문에 대한 이해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연령	40.533	2	20.267	13.744	.000
오차	84.050	57	1.475		
총	124.583	59			

표 9. ‘누구한테’ 질문에 대한 이해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연령	57.633	2	28.817	15.301	.000
오차	107.350	57	1.883		
총	164.983	59			

표 10. ‘무엇이’ 질문에 대한 이해반응의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SS)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P
연령	6.400	2	3.200	2.325	.107
오차	78.450	57	1.376		
총	84.850	59			

다섯 가지 의문사 유형 중 ‘무엇이’를 제외한 질문에 대한 아동들의 이해반응에서 연령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므로, 분산분석 이후 이들 4 개 질문 유형에 대한 이해 반응의 연령 간 차이를 각각 Tukey 사후 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4 개 질문 유형 각각에 대한 사후 검증의 결과를 <표 11>에 함께 제시하였다.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연령 간 차이는 2 세 후반과 3 세 전반 사이에서 유의미하였고, ‘누구를’과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연령 간 차이는 3 세 전반과 3 세 후반 사이에서 유의미하였다. ‘누구한테’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의 연령 간 차이는 2 세 후반과 3 세 전반, 3 세 전반과 3 세 후반 사이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4 개 질문 모두에 대한 이해 반응에 있어서, 2 세 후반과 3 세 후반의 연령 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표 11. 연령의 주효과가 유의미한 '의문사/조사'에 대한 Tukey 사후 검증 결과^a

대비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무엇을
2 세 후반~3 세 전반	**	-	*	-
3 세 전반~3 세 후반	-	**	*	*
2 세 후반~3 세 후반	***	***	***	***

a '무엇이' 질문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제외함.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결과는 연령이 2 세 6 개월부터 3 세 11 개월에 이르는 일반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무엇이',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력이 발달함을 보여주었다. 각 의문사에 대한 의미 획득의 기준을 의문사 질문에 대한 이해 정반응률 75%로 정하였을 때, '누가'는 2 세 후반에 획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을'은 3 세 전반에, '누구를'과 '누구한테'는 3 세 후반에 획득되었으며, '무엇이'는 3 세 후반에도 획득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3>과 <그림 1, 2>의 전반적 발달 과정에서 이해 정확도를 살펴보면, '누가(누구/주격)'와 '무엇을(무엇/목적격)' 질문에 대한 이해 정확도가 2 세 후반에 각각 70% 이상, 3 세 전반에 80% 이상, 3 세 후반에 95% 이상으로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발달이 진행되는 의문사는 '누구를(누구/목적격)'과 '누구한테(누구/여격)'로 이해 정확도가 각각 3 세 전반에 60% 이상이었으나, 3 세 후반에 이르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질문에 대한 이해는 조사된 5 개 의문사 중 가장 늦게 발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문사 이해의 발달 순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보고된 순서와 일치한다. Tyack & Ingram(1977)은 영어를 사용하는 아동이 '누구/주격'을 '누구/목적격'보다 먼저 이해하고 '무엇/목적격'을 '무엇/주격'보다 먼저 이해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배소영(1987)은 의문사의 조사를 생략하고 제시하였을 때 '무엇(목적격)'에 대한 이해가 '누구(목적격)'보다 먼저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같은 의문사라도 격에 따라 의문사 질문에 대한 아동의 이해 정확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의문사 자체와 문장 내에서 해당 의문사가 표지하는 격의 일반적 특징이 일치하는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지칭하는 '누구' 의문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자를 표지하는 주격의 위치에 있는 것이 행위의 대상인 사물을 표지하는 목적격의 위치에 있는 경우보다 이해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사물을 지칭하는 '무엇' 의문사의 경우, 목적격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주격의 위치에 있는 것보다 이해가 용이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언어발달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누구/주격(누가)'과 '누구/목적격(누구를)' 질문에 대한 이해를 비교해보면, 2 세 후반 아동에 있어서 의문사 '누구'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여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은 76.26%의 이해 정확도를 보였으나, '누구'에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여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41.25%의 낮은 이

해 정확도를 보였다. 그러나 언어발달이 더욱 진행된 3 세 후반에는 이러한 의문사와 격의 의미차질 사이의 일치 여부가 질문 이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누가'뿐 아니라 '누구를' 질문에 대한 이해 정반응률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무엇/주격(무엇이)'과 '무엇/목적격(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반응을 비교하면, 2 세 후반 아동에 있어서 '무엇'의 개념이 목적격조사 '을'과 결합되어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은 73.25%의 높은 이해 정확도를 보였으나 '무엇'에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38.75%의 낮은 이해 정확도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누구' 의문사 중 늦게 이해 발달이 진행 되는 '누구를'에 대한 이해가 3세 후반에는 '누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음에 반하여, '무엇이'에 대한 이해는 3 세 후반이 되어도 58.75%의 정확도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3 세 후반에 97%의 이해 정확도를 보였던 '무엇을'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아마도, 언어발달 초기에 아동들은 생체성을 갖는 '누구' 의문사는 주어의 자격으로, 비생체성을 갖는 '무엇' 의문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다. 이후에, '누구' 또한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지만, 비생체성 자질을 갖는 '무엇'에도 행위의 주체인 주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은 더 나중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맥에서 질문이 제시되었던 '누가'와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 양상을 통하여 질문 이해에 미치는 문맥의 영향이 의문사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었다. '누가' 질문은 총 4 개 문맥에서 제시되었으나, 이해 정확도는 어떤 연령 집단에서도 문맥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 개의 문맥에서 제시된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반응은 문맥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맥 간의 차이는 특히 어린 아동들에게서 더욱 뚜렷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어, 3 세 후반 아동의 경우에는 두 문맥 모두에서 90% 이상의 정반응률을 보였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사람이 하나의 대상에 어떤 행위를 가하는 참조 상황(문맥 2: 사물 목적격)에 대하여 '무엇을' 질문을 하는 경우 2 세 후반 아동들도 92.5%의 이해 정확도를 보인 반면, 두 사람이 등장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상을 매개로 행위를 가하는 참조 상황(문맥 4: 사람 여격)에 대해서는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 정확도가 2 세 후반에는 53.75%에 그쳤으나 3 세 후반이 되면 93.7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 세 후반 아동들이 문맥 2의 '무엇을' 질문에 대해서 93.75%의 정반응률을 보인 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해 정확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문맥 2와 문맥 4에서 사용된 동사들의 의미적 특성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문맥2(예: '친구가 신발을 신는다.')에서 사용된 동사는 '신다, 먹다, 타다, 줘다'로서 동사의 의미가 특정 대상과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는 것 같다. "무엇을 신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목적어인 "신발"을 답하는 것은 "누가 신어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 반면에 문맥 4(예: '선생님이 오빠한테 차를 준다.')에서 사용된 동사는 '주다, 차다, 던지다, 밀다'인데 이러한 동사들이 특정 목적어와 연결되는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Tyack & Ingram(1977)이 지적했듯이 연령이 어릴수록 특정한 동사에 대해 그 때까지 아동이 습득한 의미적 특성이 아동의 인지 처리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의문사 질문에 대한 이해 발달을 살펴볼 때, 참조 상황의 문맥을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누가'와 '무엇을' 질문을 본 연구의 문맥 2에서만 제시하였다면,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가 ‘누가’ 질문에 대한 이해보다 더 수월하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의문사 질문을 다양한 상황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누가’와 ‘무엇을’ 질문에 대한 이해가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2 세 6 개월부터 3 세 11 개월에 이르는 일반아동은 같은 ‘누구’, ‘무엇’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이라도 의문사의 격을 달리할 때는 질문에 대한 이해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린 아동일수록 행위의 주체를 의미하는 주격조사를 ‘누구’(생체성)에 연결하기 쉽고, 행위의 대상을 의미하는 목적격조사를 ‘무엇’(비생체성)에 연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은 의문사 자체의 의미 뿐 아니라 의문사가 포함된 질문 내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근거하여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언어발달지체 아동에 대한 의문사 질문 이해에 대한 중재 시 같은 의문사라고 하더라도 격과 문맥, 동사 등을 고려하여 언어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 세 6 개월 미만의 아동은 실험방법을 이해하지 못하여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2 세 6 개월 미만의 어린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어린 아동의 의문사 질문의 이해 발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아동 뿐 아니라 언어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문사 의문문 이해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광해. 1993. *국어어휘론개설*. 서울: 집문당
- 김성찬. 1997. “동사 규칙 발달.” *새국어생활*, 7(1), 125-143.
- 권경안, 이연섭, 정인실. 1980. *한국아동의 어휘발달 연구*. 서울: 한국 교육개발원.
- 배소영. 1987. *정상아동과 정인지체아동의 의문사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정신연령 3, 4, 5세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소영. 1997. “한국아동의 문법 형태소 습득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말-언어장애 연구*, 2, 27-42.
- 배소영, 이승환. 1996.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1).” *말-언어장애연구*, 1, 34-67.
- 손병환. 1985. *취학전 아동의 의문사 이해수준과 관계변인*. 경북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
- 이남순. 1998. *격과 격표지*. 서울: 월인.
- 이수향. 1998. *1½ - 2세 정상아동의 용언발달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이순형. 1983. “한국 아동의 언어 획득에 관한 연구Ⅱ.” *덕성여대 논문집*, 1, 183-203.
- 이순형. 2000. “한국 아동이 초기에 획득한 문법적 형태소의 종류 및 획득시기.” *아동학회지*, 21(4), 51-68.
- 이은경. 1999. *2~4세 유아의 격조사 발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임지룡. 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 교육 연구*, 23, 87-131.
- 조명한. 1982. *한국 아동의 언어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천기석. 1984. *국어의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용주. 2003. *2-3세 한국아동의 주격조사 생략과 출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희. 2000. *한국 아동의 어휘 발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tkinson, M. 1982. *Explanation in the Study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Cambridge, M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 L. Merkin, S. & Wooten, J. 1982. "Wh-Questions: Linguistic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e sequence of acquisition." *Child Development*, 53, 1084-1092.
- Camarata, S. M. 1998. "Connecting speech and language: Clinical applications." In R. Paul. (Eds.) *Exploring the Speech-Language Connection*. (299-318). Baltimore, ML: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Ervin-Tripps. 1970. "Discourse agreement: How children answer questions." In J. Hayes(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New York: Wiley and Sons.
- Flavell, J. H. 1986. *Cognitive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Kim, S. 1997. "The early acquisition of Korean morphology: A case study."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 89-118.
- Owens, R. E. 2001. "A functional model o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이화여자대학교 발달장애 아동센터 개원 20주년 기념 워크샵 자료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Parnell, M. M., & Amerman, J. D. & Harting, R. D. 1986. Responses of Language-Disordered Children to Wh-question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s in School*, 17, 95-106.
- Parnell, M. M., Patterson, S. P. & Harding, M. 1984. "Answers to Wh-questions: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7, 297-305.
- Rieke, J. A. & Lewis, J. 1984. "Preschool intervention strategies: The communication base."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5, 41-47.
- Savic, S. 1975. "Aspects of adult-child communication : The problem of question acquisition." *Journal of Child Language*, 2, 251-260.
- Tyack, D. & Ingram, D. 1977. "Children's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questions." *Journal of Child Language*, 4, 211-224.

접수일자: 2006. 7. 28

게재결정: 2006. 8. 30

▲ 정미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번지 (우: 140-714)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Tel: +82-2-799-1008
Email: jmr370@hanmail.net

▲ 황민아(교신저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번지 (우: 140-71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Tel: +82-2-709-2390
E-mail: hwangm@dankook.ac.kr